



신애원 농장 박동래 사장

“돼지 생리에 맞는 개량형 급이기 개발”

- 밑부분 좁고 윗부분은 넓어 돼지 입 모양에 적합
- 사료 허실방지로 양돈업계 수백억원 절감 가능



▲ 개량형 급이기를 만든 신애원 농장의 박동래 사장(우)과 급이기를 제작하는 동부기업사의 이내익 사장(좌)

박 사장은 지금까지 사료 급이기는 밑바닥이 넓게 되어 있어, 흘러내린 사료가 안쪽으로 고인다는 것. 이 때문에 새로 흘러내린 신선한 사료만 먹는 돼지들이 안쪽에 고인 사료는 먹지 않아 썩거나 돈사 바닥으로 팽개쳐 버린다고 한다. 돼지의 이런 성질을 보완해 주기 위해 개발한 것이 사료 급이기의 밑바닥은 좁히고 돼지 입이 들어가는 윗부분은 넓힌 것이다. 급이기 옆부분에도 사료가 쌓이지 않도록 각으로 처리하여 돼지의 두상 구조에 최대한 맞도록 설계하였다.

돼지의 급이 생리에 맞는 사료 급이기가 개발돼 화제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소재 신애원 농장(대표 : 박동래)은 지난 30년 동안의 돼지 사육 경험을 토대로 돼지의 생리에 가장 알맞는 사료 급이기를 개발했다. 박 사장이 개발한 사료급이기의 특징은 돼지 입이 들어가는 부분은 넓게, 사료가 고이는 부분은 좁게 만든 것.

이런 원리를 이용한 사료급이기를 돈사에 설치해 본 결과 사료 허실량이 3% 이내로 줄었다고 한다. 양돈용 사료의 시장 규모가 1년에 1조2천억원임을 감안하면 3백6십억원의 사료 낭비가 방지되는 것이다. 또한 사료급이 시간도 2~3일에 1회씩 2시간만 늦춰 주면 바닥에 남아 있는 사료를 깨끗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료 손실률을 더욱 줄일 수 있고, 급이기 청소횟수도

줄여 인력절감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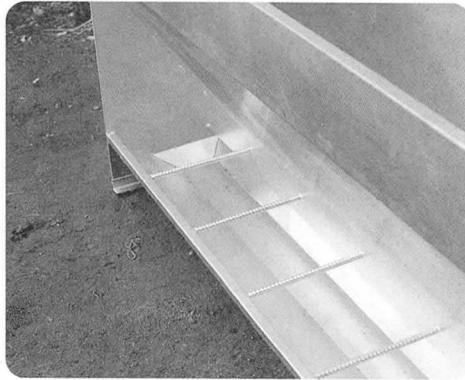
박 사장은 사료 급이기 개발과 관련 재밌는 이솝 우화를 들려 주었다. 두루미는 호리병 속의 물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우는 접시물 먹기를 좋아한다며 돼지는 입이 두루미처럼 길쭉하기 때문에 돼지의 생리적인 성질대로 급이기 통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박 사장은 개량형 급이기를 만들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급이기의 바닥은 좁혔는데 돼지 입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함께 좁혀 돼지가 성돈이 되었을 때는 사료를 먹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박 사장은 30여년간 양돈장을 경영하면서 급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도 했고 손실도 많이 보았다.

어떤 급이기는 사료가 내려오지 않아 길다란 막대로 사료통을 매일 쭈셔 주었는가 하면, 어떤 급이기는 돼지가 사료를 다 파헤쳐 사료 허실이 많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여름에는 급이기 양쪽 귀퉁이에 남아 있는 사료가 썩기도 하고, 또 이를 먹은 돼지가 설사를 하는 등 급이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늘상 사료허실이 없고 사료가 썩지 않는 급이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수십번의 시행착오 끝에 박사장 스스로 만족해 하는 급이기가 개발된 것이다.

급이기를 새로 만들어서 내다 버린것만 해도 수십개가 될 정도로 많은 고생 끝에 얻은 결과였기에 자부심과 긍지가 더하다.

박 사장은 "양돈인들이 사료 급이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돼지의 생리적 특성이 가미된 급이기를 구입해서 사료 허실을 최



▲기존 급이기와 개량형 급이기의 바닥 모양(급이기 바닥은 좁게 하고 윗부분은 넓게 하는 깔대기형을 채택했다). 좌측이 개량형 급이기

◀개량급이기의 내부 모습(모서리 부분을 각으로 처리하여 사료 섭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대한 방지하는 것이 양돈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사장은 개량형 급이기를 널리 보급하여 양돈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평택에 위치한 동부기업사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박사장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량형 급이기의 원리가 전 양돈농가에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 : 최성현 과장〉양돈